

# 주마가편... 文, 취임 2년차 '채찍질'로 공직 기강확립

〈走馬加鞭, 달리는 말에 채찍질하기〉

靑 직원에 도덕성·봉사 태도 주문  
“초심을 잃지 않고 결의 가져달라”

“선거 결과에 결코 자만하거나 안이해 지지 않도록 각별히 경계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6·13 지방선거 다음 날 입장문을 통해 국민들에게 전한 말이다.

지난 18일에는 청와대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선거 결과가 기쁘지만 한편으론 정말 두려운 마음이 든다”며 ‘가장 높은 곳에 근무하는’ 청와대 직원들에게 높은 도덕성과 국민들에게 봉사하는 태도에 대해 목소리를 높여 주문하기도 했다.

취임 2년차가 되고 집권 2기에 접어들면서 강력한 ‘집안 단속’에 들어간 것이다.

지난해 정권 창출에 이어 올해 지방선거 완승 등 여당과 청와대 직원들이 승리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가 지난 19일 청와대에서 열리고 있다. /청와대

감에 도취하고 자칫 도덕성 등에 치명타를 입을 수 있음을 우려해 통치권자로서 경계감을 강하게 드러낸 것이다.

19일 청와대에 따르면 전날 문 대통령은 수보회의에서 자신의 친인척 등 특수관계인에 대해 열심히 감시해 달라고 민정수석실에 주문했다.

회의에서 조국 민정수석이 ‘문재인 정

부 2기 국정운영 위험요소 및 대응방안’에 대해 발표한 직후다.

아울러 민정수석이 중심이 돼 청와대와 정부 감찰에서 역역을 맡아주고, 새로 창출된 지방권력도 해이해지지 않도록 적극 감시해 달라고 덧붙였다.

이날 수보회의는 평상시보다 긴 2시간 가량 진행됐다. 문 대통령의 모두발언도

평상시보다 길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민정수석실의 보고에 대해 “문재인 정부 2기를 시작하는 시점에서 과거 정부를 타산지석 삼아 오류를 되풀이하지 않고, 단결하고 협력해 국민들의 지지하에 국정을 성공시킬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였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이 여권을 중심으로 한 정치권과 청와대 직원들 단속에 앞서 민정수석실의 ‘사정의 칼날’을 자신의 친인척들에게 먼저 돌리도록 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수보회의의 모두발언에서 지방선거에서 국민들이 물표를 보내준 것에 대해 “한편으로는 굉장히 두려운 일”이라면서 “그냥 어깨가 많이 무거워졌다는 정도의 두려움이 아니라 정말 등골이 서늘해지는, 등에서 식은땀이 나는 그런 두려움이라고 생각한다”며 솔직한 심정을 토로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국민들의 지지를 받기 위해

꼭 필요한 것으로 ‘도덕성’을 꼽았다.

문 대통령은 “국정을 제대로 이끌어 나갈 수 있는 힘은 국민들의 지지밖에 없다”면서 “우리는 상대적으로 높은 도덕성을 갖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만큼 국민들이 우리에게 거는 기대도 더 높다”고 말했다.

아울러 “역대 정부를 보더라도 2년 차, 3년 차에 접어들면 도덕성에서도 늘 사고가 생겼다”면서 “초심을 잃지 않고, 도덕성 면에서 다시 한번 더 자세를 가다듬어야겠다는 결의를 함께 가져달라”고 덧붙였다.

실제 조국 수석이 이날 회의에서 발표하면서 꼽은 ‘문재인 정부 2기의 특징’에도 국민들의 기대 심리가 대단히 높다는 분석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민생 분야에서 국민들이 현 정부에 높은 기대를 하고 있다는 게 민정수석실의 자체 판단이었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 2030년, 모든 건축물 ‘태양광 발전’ 설비 갖춰야

탈핵선언 1년, 향후 전력공급 어떻게

신재생 에너지 전력 20%로 올리고  
설비용량 15.1→63.8GW 대폭확대

탈핵 선언 1년이 지나면서 원자력발전의 축소정책은 속도가 붙고 있지만 대안 전력인 재생에너지 정책이 원전을 대체할 수 있을지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19일 에너지 업계에 따르면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 조기 폐쇄 등 탈원전 정책 본격화로 전력공급 대안인 재생에너지 정책이 다시 주목받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에 따른 우려도 부각되며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지난해 말 재생에너지의 전력공급 비중을 높이는 중장기 정책을 발표했다. 대표적인 정책으로 제8차전력수급 기본계획, 재생에너지3020 등이 있다.

여기에는 지난주 조기폐쇄를 결정한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와 백지화된 천지·대진 원전사업계획이 이미 반영돼 있

다. 정부는 이미 해당 원전을 폐쇄 또는 백지화하는 것을 기정사실화하고 대비를 세우고 있던 셈이다.

이 자료들은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전력공급 비율을 20%까지 끌어올리기 위한 계획도 담았다. 향후 축소되는 원자력 발전 전력공급량을 대체하기 위해서다.

우선 전력 공급계획을 보면 원자력 발전 설비용량은 2017년 기준 22.5GW(기가와트)에서 2030년 20.4GW로 줄어든다. 여기에는 지난주 백지화된 천지·대진 외에도 신한울 3·4호기의 사업 취소가 반영됐다.

신한울 3·4호기는 앞서 정부로부터 인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법적 검토를 거친 뒤에 취소 여부가 확정된다. 현 정부에서 추진 중인 원전 사업 취소 대상 6기에 속하기 때문에 사업 백지화가 될 가능성이 높다.

반면 재생에너지 설비용량은 2017년 기준 15.1GW에서 2030년 63.8GW로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은 태양광 발전이다. 전체의 36.5GW로 57%를 차지한다. 풍력발전 설비용량은

17.7GW로 재생에너지 중 28%를 맡는다.

태양광이 재생에너지의 절반 이상을 차지할 수 있는 이유는 건축물 또는 방음벽 등에 태양광 발전 설비를 설치해 발전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한국형 발전차액지원제도(FIT)가 도입되면 태양광 전기의 공급이 늘어날 수 있다. FIT는 소규모 태양광 발전 사업자들이 전력을 발전 공기업들에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발전 공기업들은 20년간 의무적으로 이 전력을 고정 가격에 구매해야 한다. 이전에도 있던 제도지만 과거 정부 재정 부담이 너무 크다는 이유로 중단됐다.

또한 정부는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의무화 등의 조치로 2030년까지 모든 건축물에 태양광 발전 설비를 갖추도록 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농촌 지역에 영농형 태양광 모델을 도입해 농사와 태양광 발전을 병행한다. 정부는 건축물과 농촌 지역에 태양광 설치 확산을 막는 규제는 철폐할 계획이다. /박찬길 기자 cgr@

북 김정은 올해 3번째 방중

기간	1차 (3월25~28일)	2차 (5월7~8일)	3차 (6월19~20일)
주요경로	평양 - 베이징	평양 - 다롄	평양 - 베이징
이동수단	김정은 위원장 전용열차편	김 위원장 전용기 '참매 1호' (일류시 62형 고려항공편)	김 위원장 전용기 '참매 1호', 고려항공 251편 특별기 1대 (안토노프(An)-148 기종), 화물기 등 총 3대의 항공편
방중 목적	시진핑 주석 초청 비공식 방문, 시진핑 주석과 북중정상회담 및 중국 지도부 면담 등	1박2일 공식 방문, 시 주석과 북중정상회담	1박2일 공식 방문, 시 주석과 북중정상회담 전망 (3월과 비슷한 일정 예상)

※ 자료사진 연합뉴스

## 김정은, 3번째 中 방문... 석달새 6차례 정상외교

북미간 후속협상 전략 세울 듯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9일 북한을 전격 방문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사상 첫 북미정상회담을 한 지 일주일만이다.

김정은 위원장은 3월 말 1차 북중정상회담, 4월 27일 첫 남북정상회담, 5월 초 2차 북중정상회담, 5월 26일 2차 남북정상회담, 이달 12일 첫 북미정상회담에 이어 이날 3차 북중정상회담까지 석달 새 여섯 번째 정상외교를 펼치고 있는 셈이다.

특히 김 위원장의 이번 중국 방문은 시진핑 중국 주석과 정상외교를 통해 앞으로 전개될 북미간 후속협상의 전략을 가다듬을 것으로 보인다.

한반도 비핵화를 체제안전보장과 교환하려는 미국과의 담판 과정에서 믿을만한 중재자인 한국에, 뒤를 받쳐줄 우군인 중국과 끈끈한 관계를 다시 한번 확인함으로써 자신에게 유리한 구도를 만들려는 의도라는 분석도 제기된다.

실제로, 6·12 싱가포르 회담에 배석했



북한 조선중앙TV가 지난 2014년 8월 4일 방영한 기록영화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안토노프(AN)-148로 추정되는 기종의 전용기에서 내리는 모습. /연합뉴스

던 김영철·리수영 노동당 부위원장이나 리용호 외무상을 중국에 보내 설명할 수도 있지만, 굳이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나선 것이다.

북한 전문가들은 70년간 대립해온 북미 양국의 치열한 기 싸움 속에서 북한이 협상 과정에서 최악의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 G2로 자리잡은 중국의 후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날 전격적인 중국 방문이 이뤄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윤위중 기자 ywi@

## ‘北의 비핵화 약속’ UFG 연습 28년만에 일시중단

韓 단독 을지연습도 중단 가능성

한국과 미국이 연합훈련인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을 28년 만에 중단키로 한 가운데 우리 정부가 단독으로 진행하는 을지연습도 중단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북한이 한반도 비핵화를 약속한 가운데 군사적 긴장 완화를 위해 한미가 선제적으로 나서고 있는 것이다.

한·미 국방부는 19일 “한미는 긴밀한 공조를 거쳐 8월에 실시하려고 했던 방어적 성격 UFG 연습의 모든 계획활동을 유예(suspend)하기로 했다”며 “추가적인 조치에 대해서는 한미 간 계속 협의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양국 국방부는 이어 “후속하는 다른(한미군사) 연습에 대한 결정은 아직 이루



19일 미 육군의 해외 기지 중 최대 규모로 알려진 경기도 평택시 캠프 험프리스에 아파치를 비롯한 헬기가 계류하고 있다. 한미 군 당국은 올해 8월로 예정됐던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을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목표로 한 북미대화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유예(suspend)하기로 발표했다. /연합뉴스

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후속 연습은 키리졸브(KR)와 독수리(FE) 훈련 등을 말한다.

UFG 연습 일시중단은 1990년 이후 처음이다. 아울러 을지연습 중단 가능성도 제기됐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우리정부 차원의 을지연습 중단이 가능한가”라는 출입기자의 질문에 “열어두고 있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다만 “(중단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는 않았고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김승호 기자